

# 1411년 제주도 간본 『논어(論語)』의 서지학적 연구

김민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고문헌관리학 전공  
jul9tong@naver.com

I. 머리말

II. 제주도 간본 『논어(論語)』에 대한 검토

III. 저본에 대한 고찰

IV. 맺음말

## I. 머리말

『논어』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문헌이다. 『논어』는 한나라 때부터 『효경(孝經)』과 더불어 필수서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송나라 때 이학자들이 사서(四書)와 관련한 주석서를 새로이 펴낸 이후로는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논어』를 수용하였으며, 유학을 국시로 삼은 조선에 이르러서는 『논어』를 비롯한 사서오경이 통치서, 수양서, 수험서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면서 그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유통된 『논어』의 판본과 관련해서는 영락제의 『사서오경대전(四書五經大全)』을 제외하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영락제의 『사서오경대전』이 조선 전 시대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란과 화재 등으로 조선 전기 이전에 간행된 서적들이 대부분 소실된 영향도 크다. 실물이 드물기 때문에 영락제의 『사서오경대전』 이전에 유통된 판본에 대해서는 좀처럼 연구가 진행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1411년 제주도 간본 『논어』는 장서각에서 수집하였다가 현재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된 오채현 소장 자료 중 하나이다. 오채현 소장본 『논어』는 현전본 중에서도 간행시기가 밝혀진 것으로는 가장 앞선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 경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서적이다. 본서를 통해 『사서오경대전』 이전에 유통된 판본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제주도 지역 출판문화의 일면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지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서적의 간행과 그 배경 및 저본을 밝히도록 하겠다.

## II. 제주도 간본 『논어(論語)』에 대한 검토

본서는 7권 1책(권14-20)의 낙질 구성으로 권수(卷首) 일부가 탈락된 상태이다. 서지사항을 보면 표제와 권수제가 ‘論語’, 판심제는 ‘語’로 되어 있으며 표제 아래에 ‘卷六七合部’라고 책차(冊次)가 표시되어 있다. 본문에

는 비점과 현토 등을, 난상(欄上)에는 각 장의 제목과 현토를 먹으로 표시하였다. 본서의 형태사항은 다음과 같다.

線裝 7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19.5 × 14.0 cm, 無界, 13行21字  
註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26.0 × 15.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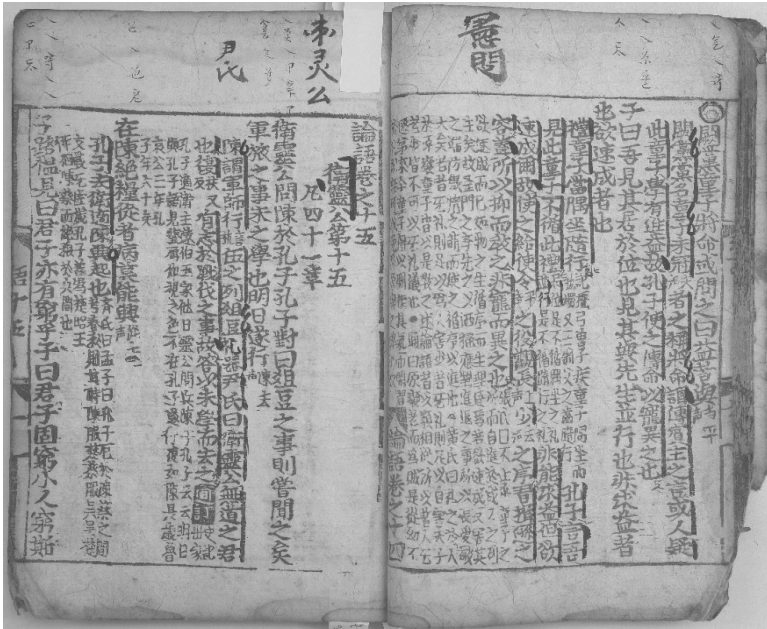


그림1-제주도 간본 『논어』의 권수면

그림1은 권14의 권수면과 본문 일부가 탈락된 관계로 권15의 것을 수록하였다.

판각의 새김이 정교하지는 않지만 책의 크기가 작고 자간이 좁으며 판심에 흑구가 있고 어미가 상하하향흑어미라는 점에서 여말선초 간본의 형태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서의 발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탐라 고을은 이득히 먼 해외에 있어 교화가 드러나지 못하고 풍속이 퇴폐하니 무릇 이곳에 부임하는 지방관들이 근심하는 바이다. 금성(錦城) 김정준(金廷僞, ?-?) 공은 기축년(1409) 겨울 11월에 (제주도) 도안무관목(都安撫判牧)으로 임명하는 명을 받고 다음해 경인년(1410) 1월 계유에 부임하여 업무를 관장하면서 교화를

밝히고 풍속을 바로잡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다. (그는) 옛사람이 논어 반 부로는 천하를 안정시키고 반 부로는 천하를 다스린 것을<sup>1)</sup> 개연히 탄식하며 널리 이 책(논어)을 구하하였는데, 다행히 생원 고득중(高得宗, 1388-1452)이 소장한 『집석(輯釋)』 선본(善本)을 얻어 이를 신묘년(1411) 10월부터 판각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같은 해 7월에 외람되어 통판(通判)으로 임명되고 11월 경오에 제주에 도착해서 직무를 맡아 힘써 감독하여 마침내 윤12월에 완료를 고하고 향학(鄉學)에 널리 배포하였다. 대개 도지관(都知官)<sup>2)</sup>의 자제들부터 서인(庶人)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교에 들어와 부자의 언행과 정사를 외우고 전한다면, (제주도의) 백성들이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높은 이를 존중하고 어른을 어른답게 노인을 노인답게 아이를 아이답게 대접하는 것을 알게 되어 교화의 밝음과 풍속의 아름다움이 기약하지 않더라도 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천하를 경영하는 자가 (논어) 반 부만을 가지고서도 저와 같이 천하를 평정하고 다스렸는데 하물며 한 고을에 있어서랴. 진실로 이 책은 치도(治道)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바라건대 훗날의 군자들은 새겨놓은 판목을 썩히지 말고 활용하여 후학에 무궁한 은혜를 베풀라. 아아, 판목(判牧)이 선성(先聖)을 존송하고 교화를 밝히는 그 정성이 기록할 만하다. 그러므로 내 비록 문장이 졸렬하지만 혐의치 않고 그 본말을 그대로 기록하노라.

1411년 윤12월 을유에 판관통덕랑(判官通德郎) 겸권농병마절제판관(兼勸農兵馬節制判官) 유학교수관(儒學教授官) 완산(完山) 류유녕(柳維寧, ?-?)이 삼가 발문을 쓰다.<sup>3)</sup>

발문 뒤에는 당시 본서의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 1) 북송 초의 재상 趙普(922-992)가 송 태종에게 했던 말에서 유래『鶴林玉露』卷7. 趙普再相, 人言普山東人, 所讀者止論語, 蓋亦少陵之說也。太宗嘗以此論問普, 普略不隱, 對曰“臣平生所知, 誠不出此。昔以其半輔太祖定天下, 今欲以其半輔陛下致太平。”普之相業, 固未能無愧於《論語》, 而其言則天下之至言也。』
- 2) 제주에서는 星主·王子의 작위가 고려 1105년(숙종 11) 郡으로 편제된 뒤에도 여전히 존제하여 대대로 세습하며 조선 초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1402년(태종 2) 성주 高鳳禮와 왕자 文忠世가 입조한 뒤,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개칭해줄 것을 중앙에 청하였다. 이에 따라 1404년(태종 4)에 성주와 왕자직을 없애고 성주를 좌도지관, 왕자를 우도지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도안무사를 파견하여 제주도 전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1445년(세종 27)년 6월에는 좌우 도지관 또한 혁파되었다.
- 3) 1411년 제주도 간본『論語』「跋」.“耽羅爲州, 邈在海外、教化不明, 風俗頽敗, 凡分憂于此者, 所當深慮也。錦城金公廷偶, 歲在己丑冬十有一月, 受都安撫判牧之命, 越明年庚寅正月癸酉, 澄任視事, 先以明教化正風俗爲務。慨然嘆於古之人有以《論語》半部定天下, 半部治天下、而旁求其書, 幸得生員高得宗所藏輯釋善本, 俾鑒于梓始於辛卯歲之十月矣。維寧於是歲七月濫拜通判, 十有一月庚午來守于茲, 輔力督之, 遂見告成于閏十有二月而廣布鄉學。蓋自都知官之子弟, 以至庶人之子弟, 皆入學校, 夫子之言行政事, 誦而傳之、則人知忠君孝親, 尊尊長長, 老老幼幼, 而教化之明, 風俗之美, 不期然而然矣。爲天下者有以半部, 如彼其定治, 況一州乎。誠此篇有補於治道者萬萬也。願後之君子, 毋令鉅梓朽耗, 以惠後學於無窮。於戲判牧之慕先聖而明教化, 其切可書也。故余雖文拙, 不以爲嫌, 而直書其本末耳。永樂辛卯閏十有二月乙酉, 判官通德郎, 兼勸農兵馬節制判官, 儒學教授官, 完山 柳維寧謹跋。”

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都安撫使 判牧使事 嘉善大夫 兼勸農管[學兵節制]<sup>4)</sup>使 金廷偶  
 監刻 前彰信校尉 虎翼巡衛司 右領中郎將 夫孫式  
 校正 成均生員 姜正路  
 校正 成均幼學 文謹  
 校正 成均幼學 梁臣彦  
 刻工僧 戒生 善能 性珍 德生 等十六人



그림2-제주도 간본 『논어』의 발문과 간행 참여자 명단

발문에 따르면 본서는 1411년 당시 제주도안무사 김정준(金廷偶, ?~?)이 제주도민들을 교화하기 위해 간행하여 향학에 반포한 것으로서 그 저본은 고득중(高得宗, 1388-1452)이 소장한 『집석(輯釋)』 논어이다. 간행 작업에는 1411년 10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판을 새기는 각승 16인, 교정에 성균유학과 성균생원 3인, 감독관 1인이 동원되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평천민인 각승을 제외하고 본서의 간행에 기여한 이들은 당시 제주도의 유력한 토성(土姓)인 고씨(高氏)·양씨(梁氏)·부씨(夫氏)·문씨(文氏)의<sup>5)</sup> 일원들이기도 하다.

4) 괄호 안에 표기된 ‘學兵節制’는 후대에 補寫된 것이다.

5) 金昌賢, 「고려-조선초 탐라고씨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제7호(1999), 280쪽.

저본을 제공한 고득중은 탐라국 개조 고을나(高乙那)의 60세손이고, 탐라성주 고말로(高末老)의 15세손으로 부친은 상호군(上護軍) 봉지(鳳智, ?-1411)이다. 1388년(우왕 14) 제주 교래리에서 태어나 일도리(현 오현단)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10세 때 재경관인이었던 아버지 봉지를 따라 상경하여 학교에 입학하였다. 1411년(태종 11)에는 부친상을 당하여 산소 옆에 초막을 짓고 예를 다해서 효행으로 천거되었고 1413년(태종 13) 음직으로 직장(直長)에 진출하였으며, 이듬해(태종 14)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sup>6)</sup>

어린 시절부터 상경해있던 고득중이 제주도에 있는 김정준에게 『논어』를 제공한 것은 1411년 고득중의 부친 고봉지가 제주에서 병환으로 사망한 것이<sup>7)</sup>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고득중은 부친상을 당한 후 산소 옆에 초막을 짓고 예를 다하여 효행으로 천거되었는데,<sup>8)</sup> 이 시기에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김정준에게 저본을 제공한 것이다.<sup>9)</sup> 고봉지가 사망한 것이 1411년 상반기이고 본서의 판각을 시작한 것은 1411년 10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들어맞는다.

본서의 간행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탐라 고을은 아득히 먼 해외에 있어 교화가 드러나지 못하고 풍속이 퇴폐하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11세기 말까지 육지에서 독립된 왕국으로 공식 지역 단위가 설치되지 않았고, 고려 정부와 탐라 토착세력 간에 공식, 비공식 접촉만 계속되다가 12세기 초가 되어서야 고려의 군현체제 내로 포섭되었다.<sup>10)</sup> 이후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탐라는 원나라가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 중국 동남해안과 일본 및 인근과의 교류에 유용하게 활용될만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그러다 1294년 5월 충렬왕이 황제에게 탐라를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고, 새로 즉위한 성종 테무르가 탐라를 다시 고려에 귀속시켰

6) 오창림, 「조선 초기 고득중(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탐라문화』 제54호 (2017), 241-242쪽.

7) 『太宗實錄』 11년(1411) 7월 4일 계해 2번째 기사.

8) 실제 고봉지의 묘소 역시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당오름에 있는 고씨 영곡공파 선세묘역에 자리하고 있다.

9) 고봉지와 고득중의 행적이 분명치 않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고득중이 1411년 혹은 그 이전 몇 년 사이에 귀향한 것만은 분명하다.

10)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2017), 74-75쪽.

11) 이강한(2017), 위의 논문, 88쪽.

다.<sup>12)</sup>

이처럼 약 100여 년간 탐라의 귀속이 반복되면서 고려 말에 제주를 지배한 존재는 고려가 파견한 목사 등의 목관(牧官), 형식상 원황제의 임명을 받는 만호(萬戶) 등의 군관(軍官), 원이 축마(畜馬)를 위해 파견한 목자(牧子), 그리고 토호인 고씨 성주족(星主族)과 문씨 왕자족(王子族)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sup>13)</sup> 게다가 13세기 후기와 14세기 전기에 원나라 왕실의 제왕 혹은 정치 관료, 체포된 도적떼 등이 탐라로 유배되기도 했다.<sup>14)</sup>

복잡한 인구 구성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 여말선초의 중앙정부는 탐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군사·경제·교육 분야 등 다방면에서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1356년부터 1376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발발한 이른바 ‘목호의 난’과 이를 진압한 사례는 중앙정부가 군사·경제 부문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당시 원나라의 잔존세력이던 목호들은 원나라의 몰락과 명나라의 압박, 공민왕의 반원정책 가운데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어 난을 일으켰으며, 고려에서 파견된 관리 역시 탐라를 치부하기 좋은 땅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이에 건디지 못한 도민들도 불가항력으로 목호의 난에 가담하는 상태였다.<sup>15)</sup> 이에 중앙정부는 최영을 앞세워 반란을 진압하고 제주도 말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를 명나라와의 교역 등에 이용하였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1394년 도평의사사가 제주도의 백호(百戶)·천호(千戶)들이 문자와 법제를 몰라서 방자하여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제주도에 향교를 설립하고 토관의 자제들을 교육시킬 것을 건의하여<sup>16)</sup> 그 해에 제주향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1410년에는 조원(趙源, ?-?)이 제주도의 백호와 천호가 왕작(王爵)을 가벼이 여기고 오히려 토관(土官)을 중하게 여겨서 기강이 서지 않으므로 토관의 자제 중에 상경하여 조정에

12) 이강한(2017), 앞의 논문, 96쪽.

13) 김창현(1999), 앞의 논문, 290쪽.

14) T. 테무르, 「明初 유배지로서 탐라: 운남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48호(2017), 27쪽.

15) 고창석, 「元明交替期の 濟州島: 牧胡亂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4호(1985), 23쪽.

16) 『太祖實錄』 3년(1394) 3월 27일 병인 2번째 기사.

시위하고 종사한 자에게만 백호와 천호의 직임을 내릴 것을 건의하여<sup>17)</sup>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에서 유가를 대표하는 경전 중 하나인 『논어』를 간행한다는 것은 향교를 설립하여 토관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고, 중앙정부에서 시위하고 종사한 자에게만 백호와 천호의 직임을 내리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성리학에 기반한 질서의식을 심어 줌으로써 기강을 바로 세우고 중앙정부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을 꾀하는 것이다. 이처럼 1411년 『논어』의 간행은 이 시기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III. 저본에 대한 고찰

#### 1. 원(元)·명(明) 간본과의 비교

고득중이 제주목에 저본으로 제공한 『논어』는 무엇일까. 발문에 따르면 그가 제공한 것은 “『輯釋』 善本”인데, 이는 예사의(倪士毅, 1303-1348)가 편찬한 『사서집석(四書輯釋)』 가운데 『논어집석(論語輯釋)』 20권을 의미한다. 『사서집석』은 진력(陳櫟, 1252-1334)의 『사서발명(四書發明)』과 호병문(胡炳文, 1250-1333)의 『사서통(四書通)』을 진력의 문인이었던 예사의가 합치고 정정한 것으로 지정(至正) 원년(1341) 건양(建陽)의 일신당(日新堂)에서 처음 간행되었다.<sup>18)</sup>

그보다 앞서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주석서가 남송 이래로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지만,<sup>19)</sup> 주자의 주석본인 『사서집주(四書集注)』가 1313년(황정 2)을 기점으로 원나라 과거제의 과목으로 채택되면서<sup>20)</sup> 보편적으로

17) 『太宗實錄』 10년(1410) 6월 19일 갑인 1번째 기사.

18) 『사서집석』의 초간본이 1341년에 간행되었다고 하지만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인 북경대도서관 소장본은 1342년에 간행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번각한 1812년 일본 간본 『四書輯釋大成』에도 ‘至正壬午(1342)夏五日新書堂刊行’이라는 木記가 있다. 따라서 초간본의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19) 顧永新, 「從四書輯釋的編刻看四書學學術史」,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43호(2006), 104-105쪽.



유통되며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물론 주자의 『사서집주』 이후로도 그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주석서들이 나왔지만 번쇄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이다.<sup>21)</sup>

그러나 예사의의 『사서집석』은 주자의 『사서집주』를 기반으로 쏟아져 나왔던 원대 사서류 저술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서적이다. 명대 이후 가장 보편적으로 유통된 영락제의 『사서대전(四書大全)』도 『사서집석』에 약간의 증산(增刪)을 한 수준이라고 언급될 정도로<sup>22)</sup>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당시 신안학과(新安學派)의 학술 풍격과 이학 사상을 반영한 저술로서 명나라 이후의 이학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sup>23)</sup>

하지만 내용의 우열을 떠나 관의 선택 여부에 따라 서적의 유통 양상이 바뀔 수 있다. 『사서집석』 역시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영락제의 명으로 편찬된 『사서대전』이 과거시험에 필수적인 교본으로 선정되자 사찬본(私撰本)이었던 『사서집석』이 자연스레 전몰된 것이다.<sup>24)</sup> 다만 그 책 자체로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기에 『약설(約說)』[원(元) 주공천(朱公遷) 『사서약설(四書約說)』], 『장도(章圖)』[원(元) 정복심(程復心) 『사서장도(四書章圖)』], 『통고(通考)』[원(元) 왕원선(王元善) 『사서통고(四書通考)』], 『통의(通義)』[명(明) 왕봉(王逢) 『사서정정통의(四書訂定通義)』] 등 후인들이 내용을 첨가한 합편본이 후대에 유통되면서 명맥이 전해졌다.

현재 원간본은 중국에서도 북경대도서관, 상해도서관에 소장된 잔본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며 일본도 극소수의 기관에만 남아 있다. 그림3은 중국에 소장된 1342년 원간본과 1812년 일본 번각본을 비교한 것으로, 번각본은 경문에 구두점(句讀點)이 빠져있고 일부 탈락된 글자가 묵등(墨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비교적 원간본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사서집석』은 이를 미진하게 여긴 예사의가 수정하여 1347년에 『중정사서집석(重訂四書輯釋)』이라는 서명으로 편찬하였으나 간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명나라 초에 건양의 유씨(劉氏)가 『사서집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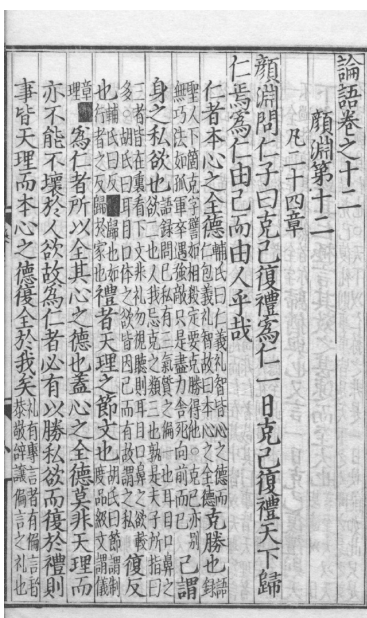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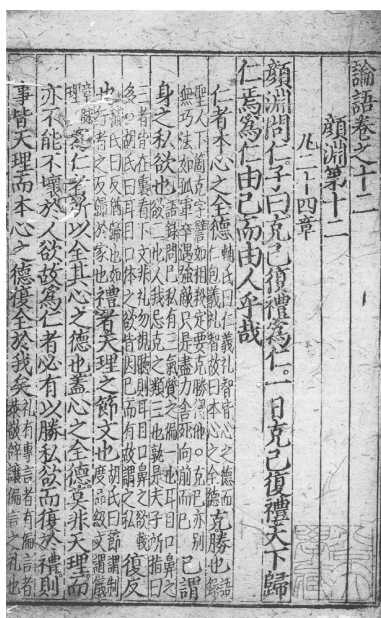
20) 김충열, 「性理學의 東漸 과정: 朱子學 持入을 기점으로」, 『南冥學研究論叢』 제12호 (2003), 46-47쪽.

21) 나카스나 아키노리, 『우아함의 탄생: 중국 강남 문화사』(민음사, 2009), 92쪽.

22) 『弘齋全書』 卷182 「羣書標記」 4, 御定 4, 重訂四書輯釋.

23) 양기석, 『四書大全에 인용된 학자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148쪽.

24) 김호, 「『四書輯釋』在韓國의 編刻與其學術內涵」, 『中國文學』 제94호(2018), 49쪽.



중국 북경대도서관 소장 1342년 일신당 간본

일본 내각문고 소장 1812년 번각본

그림3- 원간본과 번각본의 권수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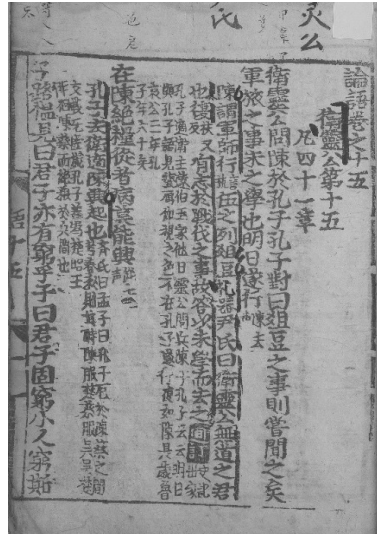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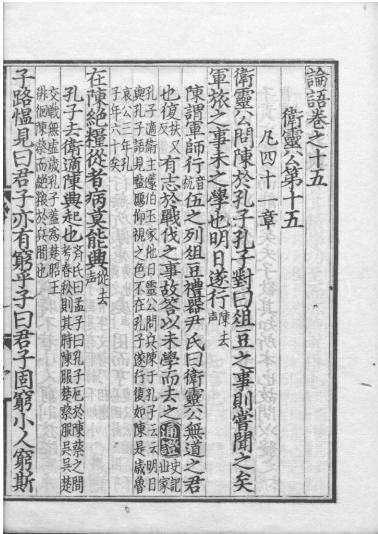
위주로 하고 왕원선(王元善)의 『통고(通考)』와 정복심(程復心)의 『사서장도찬석(四書章圖纂釋)』을 더한 합편본을 간행하여 유통시켰으며,<sup>25)</sup> 이 합편본은 조선에서도 유통된다.<sup>26)</sup>

1411년에 간행된 제주도 논어는 비록 초기 원간본이 간행된 시점과는 간극이 있지만 『통고(通考)』와 『장도(章圖)』가 삽입된 명간본이 아닌 초기 원간본 계통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이는 그림4의 편저자 표시 및 주석의 유무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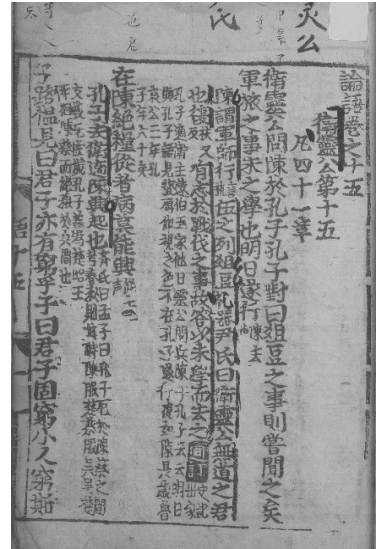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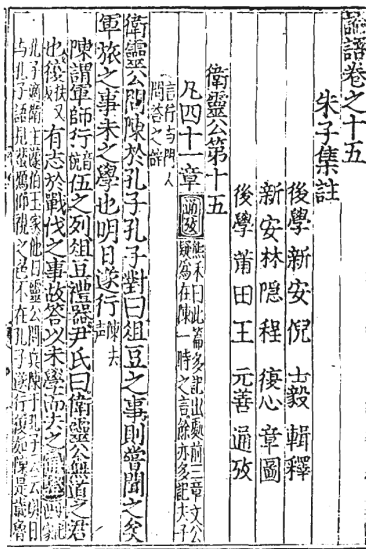
그밖에도 비교 가능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복심의 ‘장도(章圖) 유무인 데, 합편본인 명간본에서 정복심은 매 구절 설명이 필요한 부분마다 도표를 삽입하여 해당 구절을 풀이하였으나 그림5를 보면 제주도 간본에는 ‘장도’가 없다.

25) 顧永新(2006), 앞의 논문, 105-106쪽.

26) 갑진자로 간행된 『四書章圖重訂輯釋通義大成』이 전해지며 현재 일본 봉좌문고, 규장각, 성암고서박물관 등 소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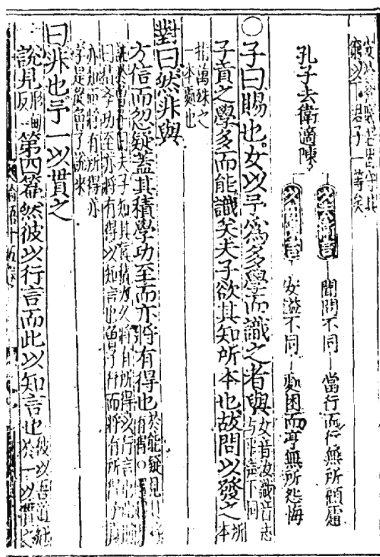
1812년 일본 번각본(좌)과 1411년 제주도 간본(우)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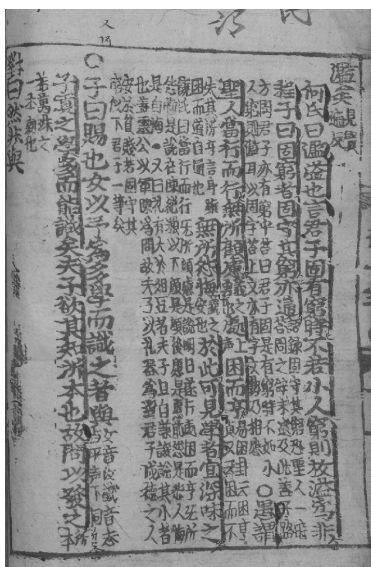
중국 북경대도서관 소장 명초 간본(좌)과 1411년 제주도 간본(우)

그림4- 원판 번각본, 명 초기간본, 제주도 간본의 권수면 비교

27) 1342년 日新堂 원간본과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나 원간본은 권12 권수면을 제외한 원본 이미지를 구할 수 없고, 제주도 간본은 권14-20가 남아 있어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가 온전한 일본 번각본과 비교하였다. 일본 번각본은 원간본과 비교할 시 구두점과 일부 글자가 결락된 것을 제외하면 원간본과 같기 때문에 그 대체재로 적절하다.



중국 북경대도서관 소장 명초 간본



1411년 제주도 간본

#### 그림5- 권15 '장도(章圖)'의 유무

이처럼 제주도 간본 『논어』가 원간본 계통을 저본으로 삼았다는 것을 원·명간본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1342년 원간본과 제주도 간본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앞서와 마찬가지로 원간본은 아니지만 그 대체제인 1812년 일본 번각본과 제주도 간본에서 비교가 가능한 권15, 권18의 일부를 선별하여 원문대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대조 결과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禮와 無를 礼, 无와 같이 이체자로 바꾸고 通證을 通訂으로 바꾸어<sup>28)</sup> 판각의 새김을 간소화한 수준이고,<sup>29)</sup> 권18의 宰을 李로 표기한 것은 판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된다. 그밖에도 책 전체에 걸쳐 본문의 탈락 유무 및 문장의 배치 등을 확인하였으나 내용과 구성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간본의 저본은 원간본 계통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28) '通證'과 '通訂'을 혼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29) 원간본과 달리 제주도 간본 『논어』에 界線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표1-일본 번각본과 제주도 간본의 원문대조

<p>◆ 大文: 衛靈公問陳於孔子, 孔子對曰“俎豆之事則嘗聞之矣, 軍旅之事未之學也”, 明日遂行。(陳去聲)</p> <p>▼ 註: 陳, 謂軍師行(音杭)伍之列。俎豆, 禮器。尹氏曰“衛靈公, 無道之君也。復(扶又反)有志於戰伐之事, 故答以未學而去之。”</p> <p>● 通證: 史記世家, “孔子適衛, 主蒧伯王家。他日靈公問兵陳于孔子云云, 明日與孔子語, 見蜚鴈, 仰視之, 色不在孔子, 遂行, 復如陳。是歲魯哀公三年, 孔子年六十矣。”</p> <p>◆ 大文: 在陳絕糧, 從者病, 莫能興。(從去聲)</p> <p>▼ 註: 孔子去衛適陳, 興起也。(齊氏曰“孟子曰‘孔子厄於陳蔡之間’, 考春秋則其時陳服楚, 蔡服吳。吳楚交戰, 無虛歲, 孔子蓋爲楚昭王徘徊陳蔡, 而絕糧楚兵間也。”) </p>	<p>◆ 大文: 衛靈公問陳於孔子, 孔子對曰“俎豆之事則嘗聞之矣, 軍旅之事未之學也”, 明日遂行。(陳去聲)</p> <p>▼ 註: 陳, 謂軍師行(音杭)伍之列。俎豆, 禮器。尹氏曰“衛靈公, 無道之君也。復(扶又反)有志於戰伐之事, 故答以未學而去之。”</p> <p>● 通證: 史記世家, “孔子適衛, 主蒧伯王家。他日靈公問兵陳于孔子云云, 明日與孔子語, 見蜚鴈, 仰視之, 色不在孔子, 遂行, 復如陳。是歲魯哀公三年, 孔子年六十矣。”</p> <p>◆ 大文: 在陳絕糧, 從者病, 莫能興。(從去聲)</p> <p>▼ 註: 孔子去衛適陳, 興起也。(齊氏曰“孟子曰‘孔子厄於陳蔡之間’, 考春秋則其時陳服楚, 蔡服吳。吳楚交戰, 无虛歲, 孔子蓋爲楚昭王徘徊陳蔡, 而絕糧楚兵間也。”) </p>
<p>1812년 일본 번각본(卷15)</p>	<p>1411년 제주도 간본(卷15)</p>
<p>◆ 大文: 少師陽擊磬襄入於海(少去聲)</p> <p>▼ 註: 少師樂官之佐, 陽·襄, 二人名, 襄卽孔子所從學琴者。海, 海島也。</p> <p>● 通證: 史記世家, “孔子<del>李</del>鼓琴, 師襄子 十日不進, 師襄子曰‘可以益矣。’ 孔子曰‘丘已習其曲矣, 未得其類也。’ 有間, 曰‘已習其類, 可以益矣。’ 孔子曰‘丘未得其志也。’ 有間, 曰‘已習其志, 可以益矣。’ 孔子曰‘丘未得其爲人也。’ 有間, 曰‘有所穆然深思焉, 有所怡然高望而遠志焉。’ 曰‘丘得其爲人, 黯然而黑, 頎然而長, 眼如望羊, 望羊視也。如王四国, 非文王其誰能爲此也。’ 師襄子避席再拜曰‘師盖云《文王操》也。’”</p>	<p>◆ 大文: 少師陽擊磬襄入於海(少去聲)</p> <p>▼ 註: 少師樂官之佐, 陽·襄, 二人名, 襄卽孔子所從學琴者。海, 海島也。</p> <p>● 通證: 史記世家, “孔子<del>李</del>鼓琴, 師襄子 十日不進, 師襄子曰‘可以益矣。’ 孔子曰‘丘已習其曲矣, 未得其類也。’ 有間, 曰‘已習其類, 可以益矣。’ 孔子曰‘丘未得其志也。’ 有間, 曰‘已習其志, 可以益矣。’ 孔子曰‘丘未得其爲人也。’ 有間, 曰‘有所穆然深思焉, 有所怡然高望而遠志焉。’ 曰‘丘得其爲人, 黯然而黑, 頎然而長, 眼如望羊, 望羊視也。如王四国, 非文王其誰能爲此也。’ 師襄子避席再拜曰‘師盖云《文王操》也。’”</p>
<p>1812년 일본 번각본(卷18)</p>	<p>1411년 제주도 간본(卷18)</p>

## 2. 여말(麗末) 간본과의 비교

『사서집석』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주자의 주석서를 위주로 한 과거제의 개정이 1313년 원나라에 이어 고려에서는 1344년(충혜왕 5)에 이루어졌고,<sup>30)</sup> 주자의 주석서를 보충한 『사서집석』은 그 초판본이 1341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30) 김충열(2003), 앞의 논문, 47쪽.

초판본의 간행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입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실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간본 『중용주자혹문(中庸朱子或問)』<sup>31)</sup>이다. 해당 판본의 권말에는 “洪虎四年辛亥七月晉州牧開板”이라는 간기가 있어 1371년(공민왕 7) 진주목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권수면에는 “後學新安倪士毅輯釋”이라는 저작자 표시가 있어 『중용주자혹문』이 『사서집석』의 일부임을 또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서집석』이 우리나라에 유통된 시점의 하한선은 1371년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밝혀진 『사서집석』의 중국간본은 원나라 지정 연간에 일신당에서 간행된 것을 제외하면 그 이후는 모두 명간본(1406년 博雅堂刊本, 1440년 詹氏進德堂本)이기 때문에, 1371년 진주간본은 원간본 계통을 저본으로 삼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sup>32)</sup>

그렇다면 제주도 간본의 저본이자 마찬가지로 원간본 계통인 『논어』를 고득중은 어떻게 입수한 것일까. 앞서 그림1과 그림4에서 보았지만 제주도 간본 『논어』의 판각 새김은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1812년에 간행된 일본 번각본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제주도 간본이 원간본의 1차 번각본이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이상 번각을 거쳐 유통되고 있던 판본을 2차 또는 3차로 번각한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판각의 새김 수준은 각수의 숙련도 및 판각 재료, 간행에 배정된 예산이나 기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쉽게 단정하기 힘들다. 게다가 제주도는 회소성 높은 재화가 풍성한 지역으로 해상 교역로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의 상인들이 출입하는 지역이었으며,<sup>33)</sup>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원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제주도 간본의 저본이 중국 관원이나 상인을 통해 육지를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직접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수학한 고득중의 행적이나 여말선초 『사서집석』의 유통 상황,<sup>34)</sup> 제주도 간본의 판각 새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1) 보물 제706호, 제707호 지정.

32) 김호(2018), 앞의 논문, 51쪽.

33) 이강한(2017), 앞의 논문, 82쪽.

34) 『중용주자혹문』 뿐 아니라 여말선초 간본인 예사의의 『大學朱子或問』도 규장각(청구 기호: 古貴 1331-6) 등 일부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논어』(청

고득중이 제공한 저본은 중국에서 직접 전래된 원간본이 아니라 고려와 조선의 중앙정부가 소재한 본토, 이른바 ‘육지’에서 유통되고 있던 여말선초 간본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림(35)을 보면 1371년 진주간본 『중용주자혹문』이 자체(字體)나 형태사항에 있어서 제주도 간본에 비해 원간본의 모습을 더 잘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간본 『논어』는 자체에서 원간본의 모습을 찾기 힘들고 일부 글자의 경우 이체자를 사용하였으며 광곽이 사주쌍변에서 사주단변으로 단순화되고 계선이 탈락되는 등 진주간본에 비해 간소화되고 열화된 모습을 보인다. 각수의 수준과 간행 당시의 제반조건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판각의 새김에 있어 차이가 명확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득중이 제주도에 제공한 저본은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던 여말선초 간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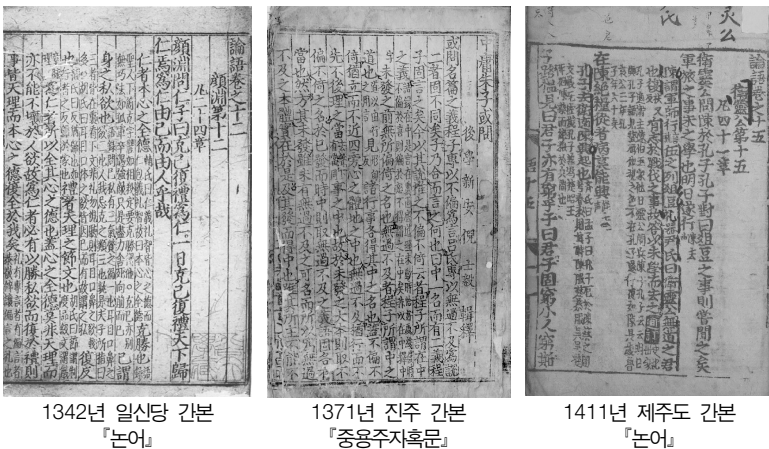


그림6- 『사서집석』 원간본과 고려본·조선본 비교

구기호: 성암(1-236)는 제주도 간본과 형태사항이 매우 유사하여 『사서집석』 계통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박물관의 사정으로 실견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기약한다.

-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논어』의 형태사항[소장본(卷15-19). 5卷1冊: 四周單邊 半郭 18.2 × 13.4 cm, 有界, 13行21字 註雙行, 小黑口, 上下向黑魚尾; 25.2 × 16.5 cm.]
- 제주도 간본 『논어』의 형태사항[소장본(卷14-20). 7卷1冊: 四周單邊 半郭 19.5 × 14.0 cm, 無界, 13行21字 註雙行,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26.0 × 15.9 cm.]

35) 원간본과 제주도 간본 『논어』의 비교대상으로는 『사서집석』 계통으로 추정되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논어』가 적합하다. 그러나 각주 3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서집석』 계통인 1371년 진주간본 『중용주자혹문』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원간본 『논어』는 북경대도서관 소장본이며, 진주간본 『중용주자혹문』과 제주도 간본 『논어』는 오세현 소장본이다.

#### IV. 맺음말

제주도에서 간행된 『논어』는 1411년 당시 제주도안무사 김정준이 제주도민들을 교화하기 위해 간행하여 향학에 반포한 것으로, 그 저본은 고득중이 소장한 “『집석(輯釋)』 선본(善本)”이다. 발문에 따르면 본서의 간행에는 1411년 10월부터 1411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판을 새기는 각승 16인, 교정에 성균유학과 성균생원 3인, 간행의 감독관 1인이 동원되어 간행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본서의 간행에는 평천민이라 할 수 있는 각승을 제외하면 제주도의 유력한 토성이었던 고씨(高氏)·양씨(梁氏)·부씨(夫氏)·문씨(文氏)가 참여하였다. 당시 저본을 제공한 고득중은 1411년에 사망한 부친 고봉지의 상을 치르기 위해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김정준에게 저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여말선초의 제주도는 고려와 원나라의 제주도 귀속 문제 때문에 고려가 파견한 목사 등의 목관(牧官), 형식상 원황제의 임명을 받는 만호(萬戶) 등의 군관(軍官), 원이 축마(畜馬)를 위해 파견한 목자(牧子), 그리고 토호인 고씨 성주족(星主族)과 문씨 왕자족(王子族) 등 다양한 계층이 제주도의 지배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당시 원나라 왕실의 제왕 혹은 정치 관료, 체포된 도적떼 등이 제주도로 유배되기도 하는 형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탐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사례로 원나라 잔존세력에 의해 발발한 ‘목호의 난’을 군사를 동원하여 진압하고 제주도 말에 대한 소유권을 영구히 확보하였으며, 향교를 설립하여 토관의 자제들을 교육 시키고 중앙정부에서 시위하고 종사한 자에게만 백호와 천호의 직임을 내리는 등 군사·경제·교육·인사 등 다방면에서 조치를 취했던 것을 들 수 있다.

1411년 제주도에서 간행된 『논어』는 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는 제주도민들에게 성리학적 질서의식을 심어 줌으로써 기강을 바로 세우고 중앙정부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을 꾀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논어』의 간행 목적과 유사한 것으로 일암왕(逸庵王)이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저술한 교화서인 『정속(正俗)』이 제주도에서 간행된 사례를 들 수 있다.<sup>36)</sup>



본서의 저본은 예사의(倪士毅, 1303-1348)가 편찬한 『사서집석(四書輯釋)』 가운데 『논어집석(論語輯釋)』 20권이다. 『사서집석』은 원나라 지정(至正) 연간에 건양(建陽)의 일신당(日新堂)에서 간행된 원간본과 명나라에서 간행한 판본(1406년 博雅堂刊本, 1440년 詹氏進德堂本) 등이 전해지는데, 제주도 간본은 초기에 간행된 원간본 계통을 저본으로 삼았음을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제주도 간본은 저본을 제공한 고득종의 행적이나 여말선초 『사서집석』의 유통 상황, 판각의 새김 수준 등으로 보아 기존에 육지에서 유통되고 있던 여말선초 간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간본의 저본이 되는 『사서집석』은 주자의 『사서집주』를 기반으로 쏟아져 나왔던 원대 사서류 저술 중에서도 신안학과(新安學派)의 학술 풍격과 이학 사상을 반영한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저술이며, 명대 이후 보편적으로 유통된 영락제의 『사서대전(四書大全)』도 『사서집석』에 약간의 증산(增刪)을 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영락제의 명으로 편찬한 『사서대전』이 과거시험에 필수적인 교본으로 자리잡으면서 『사서집석』을 비롯한 사찬(私撰) 사서류 저술들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영락제의 『사서대전』을 과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후기로 넘어가면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서(四書) 간본은 오로지 영락제의 『대전』 뿐”이라고<sup>37)</sup> 할 정도로 획일화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나마 조선전기에는 『사서집석』이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본, 갑진자본으로 간행되기도 하였으나<sup>38)</sup> 현재 갑인자본은 전하지 않으며 갑진자본은 『약설(約說)』[원(元) 주공천(朱公遷) 『사서약설(四書約說)』], 『장도(章圖)』[원(元) 정복심(程復心) 『사서장도(四書章圖)』], 『통고(通考)』[원(元) 왕원선(王元善) 『사서통고(四書通考)』], 『통의(通義)』[명(明) 왕봉(王逢) 『사서정정통의(四書訂定通義)』] 등 후인들이 내용을 첨가한 합편본으로 간행되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영락제의 『사서대전』이 후대로 갈수록 보편적으로 유통되자 『사서집석』은 그에 비례하여 더욱 보기

36)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6쪽.

37) 『研經齋全集』 卷14, 文, 「東儒四書輯注例說」.

38) 김호(2018), 앞의 논문, 59쪽.

힘든 책이 되어, 정조가 일본에서 책을 수입하여 후학(後學)이 붙인 ‘약설(約說)’, ‘장도(章圖)’, ‘통고(通攷)’, ‘통의(通義)’ 등을 모두 삭제하고 예사어가 편찬한 구본(舊本)만을 뽑아 다시 한편의 책으로 만들기도 했다.<sup>39)</sup>

1411년 제주도에서 간행된 『논어』는 간행기록이 남아 있는 현전본 『논어』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따라서 영락제의 『사서오경대전』 이전에 유통된 사서 주석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실증적인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학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전본이 많지 않은 『사서집석』을 저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현재 『사서집석』의 원간본은 낙질만 전해지는 실정이며, 1812년 일본에서 간행된 원판 번각본 역시 일부 탈락된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본서가 탈락된 글자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조선전기에 간행된 것으로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sup>40)</sup>,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동국사략(東國史略)』, 『목민심감(牧民心鑑)』, 『검시장식(檢屍狀式)』, 『적벽부(赤壁賦)』, 『완화유수(浣花流水)』<sup>41)</sup>가 알려져 있으나 조선전기에 간행된 제주도 출판물로서 본서가 새로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문화사적인 의미 또한 가볍지 않다. 더욱이 본서는 제주목의 관아 건물과 책판이 모두 소실된 1435년(세종 17) 대화재<sup>42)</sup> 이전의 간행물이기 때문에 1404년 11월 간행본 『황석공소서』, 1418년 3월 간행본 『예기천견록』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39) 『弘齋全書』 卷182 「羣書標記」 4, 御定 4, 重訂四書輯釋.

40) 박철상, 「조선 최고의 병서 제주도관 黃石公素書의 출현과 의미」, 『문헌과 해석』 제45호(2008), 272쪽.

41) 윤봉택(2007), 앞의 논문, 94쪽.

42) 윤봉택(2007), 위의 논문, 같은 쪽.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太祖實錄』.

『太宗實錄』.

倪士毅, 『論語』.

倪士毅, 『中庸朱子或問』.

正祖, 『弘齋全書』.

成海應, 『研經齋全集』.

### 2. 단행본

나카스나 아키노리 저, 강영매 역, 『우아함의 탄생: 중국 강남 문화사』. 민음사, 2009.

中國國家古籍保護中心 編, 『第三批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2.

### 3. 논문

고창석, 「元明交替期の 濟州島: 牧胡亂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 1985, 1-24쪽.

金昌賢, 「고려-조선초 탐라고씨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7, 1999, 279-319쪽.

김충열, 「性理學의 東漸 과정: 朱子學 持入을 기점으로」. 『南冥學研究論叢』 12, 2003, 1-52쪽.

박철상, 「조선 최고의 병서 제주도관 黃石公素書의 출현과 의미」. 『문헌과 해석』 45, 2008, 265-274쪽.

安賢珠, 「조선시대에 간행된 漢文本 『論語』의 板本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4, 2002, 311-344쪽.

양기석, 『四書大全에 인용된 학자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오창림, 「조선 초기 고득중(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탐라문화』 54, 2017, 237-263쪽.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2017, 73-123쪽.

T. 테무르, 「明初 유배지로서 탐라: 운남 몽골인의 타향살이 역정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48, 2017, 27-48쪽.

顧永新, 「從四書輯釋的編刻看四書學學術史」,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3, 2006, 104-113쪽.  
김호, 「《四書輯釋》在韓國的編刻與其學術內涵」, 『中國文學』 94, 2018, 49-63쪽.

#### 4. 사이트

문화재청(<http://www.cha.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종합DB(<http://db.itkc.or.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搜韻網 影印古籍資料(<https://sou-yun.com/>).  
國立公文書館(<http://www.archives.go.jp/>).

## 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논어』는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된 오채현 소장 자료 중 하나이다. 본서는 1411년 제주도안무사 김정준(金廷僞, ?-?)이 제주도민들을 교화하기 위해 간행하여 향학에 반포한 것이며 그 저본은 당시 생원이었던 고득중(高得宗, 1388-1452)이 소장한 『집석(輯釋)』 선본(善本)이다. 이는 예사의(倪士毅, 1303-1348)가 편찬한 『사서집석(四書輯釋)』 가운데 『논어집석(論語輯釋)』 20권을 의미한다. 예사의의 『사서집석』은 현재 원나라 지정(至正) 연간에 건양(建陽)의 일신당(日新堂)에서 간행된 원간본과 명나라에서 간행한 판본(1406년 博雅堂刊本, 1440년 詹氏進德堂本) 등이 전해지는데, 본서는 초기에 간행된 원간본 계통을 저본으로 삼았음을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본서에는 간행에 동원된 각승(刻僧) 16인, 교정(校正)에 성균유학(成均幼學)과 성균생원(成均生員) 3인, 감독관 1인이 기록되어 당시 간행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1411년 제주도 간본 『논어』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현전본 논어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확인되어 주목할 만하다.

**투고일** 2018. 12. 20.

**심사일** 2019. 01. 08.

**게재 확정일** 2019. 02. 21.

**주제어(keyword)** 논어(論語, Analects of Confucius), 사서집석(四書輯釋, Saseojipseok), 고득중(高得宗, Goh Deuk-jong), 김정준(金廷僞, Kim Jeong-jun), 예사의(倪士毅, Ye Sa-ui), 제주도(濟州島, Jeju Island)

## Abstracts

### A Bibliographic Study on *Analects of Confucius*, a Printed Book of 1411 on Jeju

Kim, Min-hyun

*The Analects of Confucius* introduced in this paper is one of the materials owned by Oh Chae-hyeon and housed at the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It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Hyanghak(鄉學) to enlighten the people of Jeju Island by Kim Jeong-jun(金廷僞,?-?), who was the Anmusa(安撫使) of the island in 1411. Its original script was the “Seonbon of *Jipseok*(輯釋 善本)” owned by Goh Deuk-jong(高得宗,1388-1452), who was an esquire at that time. It consists of 20 volumes of *Noneojipseok*(論語輯釋) of *Saseojipseok*(四書輯釋) published by Ye Sa-ui(倪士毅,1303-1348), which was transmitted in the original publication version published by Ilsindang(日新堂) of Geonyang(建陽) during the Jijeong(至正) years of Yuan dynasty and in the woodblock-printed version[Bakadangganbon(博雅堂刊本) in 1406 and Cheomssijindeokdangbon(詹氏進德堂本) in 1440] published in Ming.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book was based on the original publication version published in the early days. There were 16 Gakseongs(刻僧) mobilized in its publication, three Seonggyun Yuhaks(成均幼學) and Saengwons(成均生員) in its correction, and one supervisor, which helps to estimate the size of its publication. *Saseojipseok*(四書輯釋), which is the original script of the book, is considered as one of the greatest works to reflect the academic character of the Sinan school(新安學派) and the Ihak(理學) ideology. It is also noteworthy as the earliest woodblock-printed book among the currently available versions of *Analects of Confucius* in the nation.